

2024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권리분과 정책제안서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포옹’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전문적 올인원(All-in-One)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포옹’ 신설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증가하는 청년들의 고립·은둔 현황

- 최근 실태조사 결과, 19세~34세 중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은 최대 약 54만 명 규모까지 추정되며, 이중 경상남도 청년 71만 명 중 ‘고립·은둔청년’은 2만 8,000여 명(4%)으로 추정됨
- 이를 방치할 경우, 고립·은둔 심화로 향후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상되나, 현재는 고립·은둔 분야의 전문기관(부서 등)이 없으며, 기존 정책 틀로는 개입과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최근예야 정부 차원의 심층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계열적 비교·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빠른 증가 속도가 우려되는 실정임

○ 고립·은둔청년의 원인 분석

- 대면소통이 어려운 청년 증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관계 안전망 부족, 학업·취업 경쟁 및 직장문화 등의 위기 시 회복탄력성 저하
-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지식산업 등 ‘고용없는성장’ 산업구조로 전환 가속화되며, 소수 양질의 일자리 경쟁에서 뒤처진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
-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기타’가 가장 다수를 차지함. 은둔의 명확한 이유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응답률이 높은 것은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관계’, ‘학업중단’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도 위기취약청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고립·은둔청년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

- 신체활동이 저하되며, 높은 확률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발병, 건강·복지 등 사회적 부양 비용 증가
- 국방·납세·교육·근로·결혼·출산 등 청년기의 경제·사회 활동 저하는 모든 사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위험 수준의 고립·은둔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가족 해체의 위험이 커짐
- 경제활동의 주력층인 청년층의 감소는 다양한 경제적 손실, 사회 생산성 저하를 초래함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청년을 구출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포옹’ 를 신설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 전문기관의 체계적 지원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함

○ 필요성

- 사회적 연결 촉진 :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 기존 정책 및 지원의 한계점 탈피 : 현재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음. 이로 인한 체계적 지원이 어려우며,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전문가 확보 및 역량 강화 : 심리상담, 사회복지,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원체계를 전문기관을 신설해 관리함.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쉬워지며, 전문인력 발굴에도 효과적임

- 사회적문제 해결 : 사회 참여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인적자원낭비, 경제적 부담 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비용 증가, 정신건강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근거 : (법률)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조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사업내용 :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습지원, 사회복귀 지원, 교육훈련,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포옹’ 신설을 통해 체계적, 전문적 울인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상담 및 치료 : 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인지행동치료, 정신건강 상담 등
 - 생활지원 : 식량, 의료, 주거, 생활용품 지원, 경제활동 지원 등
 - 건강지원 : 건강검진, 질병 치료, 의료 상담, 건강교육 등
 - 학습지원 : 기초 학력 교육, 직업훈련, 취업역량개발 등
 - 사회복귀 지원 : 동아리, 자립 훈련,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
 - 교육훈련 : 자기계발 교육,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
 -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단체, 자조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 시설 : 고립·은둔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상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장소
 - 인력 :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고립·은둔자의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자
- 사업기간 : 2025년~2027년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

- 사업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고립·은둔청년 혹은 그들의 주변인
- 사업량 : 경상남도 내 광역센터 1개 설립, 고립·은둔청년 1만 명 이상 발굴

□ 세부 추진계획

- (사전검토)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및 자문 활동, 경남의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방향 사전조사 등
- (부지 또는 대상 건축물 선정) 입지, 접근성, 공간 규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승인) 관계부서 협의, 타당성 조사 등 대상 확정 및 사업승인
- (공사계약) 입찰 및 계약 체결
- (공사착수)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
- (공사관리)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지도 및 감독
- (계획변경)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에 보고
- (준공확인) 공사 후 경상남도 및 건립심의위원회의 준공 확인
- (인력구성) 센터장 및 그 외 전문 인력 구성
- (대상자모집)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 (센터운영) 경상남도 주관하에,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포옹’ 의 세부 지원내용

- 고립·은둔청년 적극 발굴 및 사업 홍보
 - (대상) 고립·은둔한 기간이 1년 이상인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경남 거주 청년 및 그의 주변 지인(가족, 친구, 선생님 등)
 - (발굴방법) 대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으로 접근성을 향상함
- 1)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SNS 등으로 전문상담사와 실시간 온라인 채팅 혹은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 개입, 대상자 발굴

- 2) 아웃리치 : 찾아가는 거리 상담, 지역사회 축제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 3) 가족·지인 : 고립·은둔청년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을 표적화한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홍보로 대상자 발굴
- 4) 지역사회연계 : 학교,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발굴한 고립·은둔청년을 연계 받음

○ 고립·은둔 유형 분류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 (목적)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전문 척도를 사용하여 유형 분류함.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립·은둔청년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복귀를 도움
- (접수면접) 초기 접수면접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대상자의 기본 정보, 고립·은둔 상황, 서비스의 요구 및 욕구 파악을 위하여 진단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함. 이를 통해 유형화 작업을 거친 후 지원 방향성 수립
- (진단검사) 고립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통해 고립·은둔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잠재적 고립형’ 과 ‘은둔 고립형’ 으로 유형화
- (심리검사) 고립·은둔 유형에 따라 체계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접수면접 시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판단함. 고립과 신체, 정신적 문제 등 정도에 따라 심층적 검사 진행
- (참고) 청년 고립 유형¹⁾

유형	비고립	잠재적 고립	은둔형 고립
고립 기간	1년 전후	2-3년	4-10년
위험도	고립도 낮음	고립도 중간	고립도 높음
특징	학교나 직장, 학원에 다니며, 자주 혹은 가끔 외출	학교나 직장, 학원에 다니지 않지만, 종종 외출	학교나 직장, 학원에 다니지 않으며 거의 외출 안함

1) 창원복지재단(2023), 창원시 청년고립 실태조사

○ 유형별 올인원(All-in-One) 프로그램 제공

- (방법) 고립 유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 전문가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 접수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지원에서 사회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올인원 지원을 제공
- (프로그램 구분) 고립 위험도별 제공 프로그램

고립 위험도	유형별 제공 프로그램
고립도 낮음	개인 성향에 맞는 역량 교육 및 기회제공 등
고립도 중간	자아·진로 탐색, 자조모임 등
고립도 높음	개별회복 프로그램, 정신건강 치료, 신체건강 진료 공동생활 추천 등

- (프로그램 종류)

1) 리커버리 프로그램

- 신체 정서(운동, 산책, 표현, 용기 등)
- 관계(대인관계 형성, 친구관계, 기질, 성격 알아보기 등)
- 경제(일경험, 돈, 진로, 진학, 취업 가이드 등)
 - * 일경험 프로그램: 대상자의 관심사, 전공과 관련하여 일 경험을 미리 체험해 보면서 사회로 나가는 부담감을 줄임
- 사회활동경험(전시, 공연, 액티비티, 봉사 등)
- 시간(건강한 일상루틴 회복, 시간 계획 설정 등)
- 목표설정(단기, 장기 목표 설정, 동기부여, 자신감 형성 등)

2) 가족 프로그램

- 부모교육(부모-자녀 이해하기, 객체로 바라보기 등)
- 부모-자녀 소통하기(올바른 소통 방법 훈련)

3) 상담 치료

- 우울, 무력감, 무희망감 등을 줄이는 정신건강 상담
- 부정적 인지를 줄이기 위한 인지행동 교정

4) 자립을 위한 공동체 생활(셰어하우스) 프로그램

- 고립·은둔 청년 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상호지지, 협력 관계 형성. 단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소속감, 대상자의 사회성 회복, 일상생활 능력 향상, 사회적 연결 회복 등을 도움
- 3~4인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로 구성
- 가족과 떨어져 청소, 식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청년 공동체 간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

5) 사후 프로그램

- 취업 후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제공
- 일상 고립 방지를 위한 시민 교육 사업 진행

○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능력이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상별 종사자 교육훈련과정 개설,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 유사 자격증(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에 고립·은둔 대상 관련 교육내용 추가

○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 커뮤니티 형성

- 홈페이지 속 청년 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고립·은둔청년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 운영
-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모 간의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 운영

○ 지역사회 내 고립·은둔청년 연계협력 조직망 구축

- 경상남도청, 보건소, 유사기관(가족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센터, 고용센터 등), 상담센터 등 고립·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가 소속된 ‘고립·은둔청년지원협의체’를 구축하여 고립·은둔청년 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 수시 회의 개최 등

- 해당 조직망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 경상남도 내 지속적인 실태조사 진행

- 현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및 연구에 따라 한국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자 하는 일본 히키코모리와 다르게, 한국의 고립·은둔청년은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1인 가구를 지속하려는 특성이 있는 등의 다른 양상을 보임. 이에 따라 한국형 고립·은둔청년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함
- ‘고립·은둔청년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내 고립·은둔청년의 발굴, 진단·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 등을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속적인 사례관리/모니터링

- 자발적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대상자의 의지에 따라 상호협의 후 종료 시점을 결정하며, 매해 ‘고립·은둔 졸업제’를 시행함. 5년간 같은 회기 졸업자를 모아 동창회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센터 이용을 종료하더라도 안전한 소속감을 제공하며 재고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 진행
- 타 지자체의 고립청년 지원정책 비교 분석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커뮤니티,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및 맞춤형 사업을 개발함

- 점차 심화하고 있는 고립·은둔 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함
- 고립·은둔청년에게 자기 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함
- 고립·은둔 청년층의 체계적 지원이 자리를 잡아가며, 나아가 고립·은둔 중장년층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외 유사정책

1. 청년재단-고립청년 지원사업 ‘이음 프로젝트’ : 청년의 고립 해소를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공동생활 프로그램, 인식개선 콘텐츠, 네트워크 형성, 청년과 가족 참여 문화행사 등 고립·은둔청년의 안정적 사회 안착 지원

- 관련주소 : https://kyf.or.kr/user/content.do?pageId=PAGE_000000000000053

2. 보건복지부 -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 :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 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예정임

- 관련주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2151400530>